

# 이원재 제1차관, “태풍·호우 피해방지·국민생명 보호” 강조

## - 15일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에서 재난 대비 강화 당부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5일(월)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 정보센터에서 「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」를 주관했다.
  -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,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,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.
- 이원재 차관은 “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”을 당부했다.
  - 또한, “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 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·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·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,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·보강,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
  -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, 도로반,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.

2023. 5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